

□ 해외 출장 보고

사할린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전 수 태
(어문실태연구부 연구관)

1. 머리말

사할린은 일제 때 징용간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통 속에 청춘을 보내고 고국으로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 외에는 잊혀진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에 1994년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 간 서정목 어문실태연구부장과 함께 한국어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파견되어 동포 한국어 교사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어 교육, 유관 기관 방문, 그리고 한인 1세들의 한이 서린 유적지 방문 등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앞으로 이곳에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할 다음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일정 및 소감

7월 12일(화) : 오전 10시에 이륙한 비행기는 정확히 3시간만에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한국교육원 한만희 원장과 동포 한인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한국교육원을 들러서 민박할 숙소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도둑이 심하니 오후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차림새는 가능한 한 간소하게 해서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원장님이 충고를 해 주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7월 13일(수) : 9시에 한국교육원에 도착하였다. 사할린 거주 한국어 교수 및 교사 교육 개강식이 있었다. 한국어 교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만희 원장, 서정목 부장, 뮤슈크 사할린주 교육국장, 갈리나 파치브나 주 교육국 연수담당 겸 사할린스크 한인회장, 김춘경 한인회 부회장, 김순희 사범대 교수와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이 거행되었다.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은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짐을 느꼈다. 국민 의례는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를 나란히 게양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국가는 애국가만을 봉창했다. 구소련이 독립국가 연합으로 분리된 이후 아직 러시아에 국가가 없다고 한다.

10시에 강의가 시작되어 점심 시간 없이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도 거르고 첫날부터 강사나 연수생이나 모두 불이 붙은 듯 열심이었다. 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맙게 느끼고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움추려 살아 온 이들이 언제 우리 말을 자랑스럽게 고국의 동포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었던가!

7월 14일(목) : 오후 4시에 한 원장, 이옥자 선생과 함께 사할린주 교육국을 방문하였다. 어제 개강식에 참석했던 뮤슈크 국장과 갈리나 파치브나 여사, 그리고 부국장 라이사 여사가 반가이 맞아 주었다. 뮤슈크 국장은 인상이 아주 착하고 유순해 보였다. 러시아산 꼬냑을 들면서 이옥자 선생의 통역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책을 들여 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통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자 다음부터는 교육국으로 부쳐 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니 한국교육원으로 오는 책이나 자료는 그렇게 해 달라라는 호의적인 제안을 하였다. 주 교육국과 한국교육원이 융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뻐다.

연수생들은 강의가 끝난 오후 시간에 자기들끼리 다시 모여 오전에 들은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여기에 대해 토론을 벌여 강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넘어가려는 열의를 보였다. 이 모임은 강의 끝 날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7월 16일(토) : 오늘은 사할린에 와서 첫 번째 맞는 휴일이다. 이곳 관행대로 주말에는 쉬기로 한 것이다. 한 원장 내외가 마련한 봉고차로 사범대학의 김순희 교수와 함께 가까운 곳의 관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립 요양원에 들렀다. 1980년에 근로자들의 휴양소 겸 병원으로 지은 복지 시설인데 처음은 무료였다고 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수익자 부담으로 바뀌었는데 1박 3식에 30,000루블이니 하루 15달러가 되는 셈이다.

푸른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네폴리스크' 광산촌을 찾았다. 노천 석탄 광산이었다. 길에 덩구는 석탄 덩어리가 밟길에 차였다. 푸른 산,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쾌적한 자연이었다. 사할린에는 석탄, 석유, 가스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어 자급자족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봉급 때문에 파업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 며칠 되지 않았다 한다. 광산 파업은 봉급 문제로 일어난 것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부지런하지 않은 모양이다. 사할린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쫓겨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여권이 강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 당연히 가사를 분담해야 할 남자가 종일 보드카에 취하여 살림도, 어린애도 돌보지 않으니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키장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전체를 조감할 수 있었다. 사할린에는 겨울이 길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넉넉하게 퍼져 있는 도시, 그 주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초원, 그리고 남쪽의 해안선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저녁에는 주정부 대의 협력국의 유정숙 선생이 만찬에 초대해 주었다.

7월 17일(일) : 사할린의 제일 남쪽 항구인 코르사코브로 향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동포가 3,8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코르사코브 이순복 한인회장과 김순금 부회장, 그리고 충남 공주가 고향이라는 노인회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코르사코브항의 부두를 안개 속에 내려다 보았다.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와 두려움에 떨며 내리던 조상들의 한이 서린 이 부두를 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기 이 부두에서 1992년 김지미 씨가 영화 '명자, 아키코, 소냐' 를 찍었는데 그 때 우리 동포 모두가 엑스트라 역할을 했다고 한다.

7월 18일(월) : 오늘도 강의는 계속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는 한인 동포들은 러시아 국적이 없는 경우에 15k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 여행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한 달에 두 번 즉, 매월 1일과 15일에 고정적으로 물가가 오르니 생활에 상당한 압박이 오는 모양이다. 60루블 하던 시내 버스가 단번에 600루블로 올라 시민들이 거칠게 항의하여 400루블로 낮추어줬다고 한다. 이처럼 물가 인상이 %단위가 아니라 10배 정도씩 한꺼번에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활 정도는 괜찮은 편이고 일제 자가용차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또, 남녀 모두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히 생활이 좀 부드러울 수밖에 없기도 하다. 오후에 시내에 나가 몇 가지 선물을 샀다. 어디를 가나 우리 나라 상품이 쌓여 있어 기분이 호뭇하였고 동포들도 몹시 자랑스러워 했다.

7월 19일(화) :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 '투나이차' 호수를 관광하였다. 투나이차는 아이누족 어떤 아가씨의 이름이라 한다. 아이누족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남자가 배반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자 슬퍼 눈물을 흘린 것이 투나이차 호수가 된 것이며 그래서 호수물이 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호수는 바다와 연결되어 바닷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물이 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커서 사할린 제2의 함수호이다. 짠

물과 눈물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이다.

7월 20일(수) : 강의는 계속되었다. 강의 후에는 주 교육국의 갈리나 여사와 한국교육원의 한 원장, 그리고 연수를 하는 교사들간의 토론회가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점심은 과자 몇 개와 차이(차) 한 잔으로 대신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주 교육당국,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들 모두의 고무적인 분위기를 헤아릴 수 있었다. 오후 7시에는 김순희 선생 덕에 초대를 받았다.

7월 21일(목) : 오늘은 강의의 마지막 날이다. 오후 2시 30분에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강의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다. 주 교육국장과 갈리나 여사는 정시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강사와 연수생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낸 7일이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오후 4시쯤 우리 연구원에서 베푸는 다과회가 있었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요기를 하게 된 것이다. 사할린에서 교육을 하는 동안 점심을 제 시간에 먹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육자 선생이 저녁 초대를 해 주었다.

오후 6시 20분부터 6시 50분까지 계속되는 사할린 라디오의 한국어 방송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7월 19일(화) 일본인이 민박을 하고 있던 집에 복면을 한 3인조 강도가 들어 일본인을 살해하고 일화 120만 엔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목숨과 함께 강탈당한 것이다. 치안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는 호텔이 아닌 민박을 선호한다는데 민박까지 무방비라면 어디에 숙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두렵기만 하다. 아름다운 자연, 후한 인심, 풍부한 물자에 부지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마피아인지 강도인지가 횡행하는지 모르겠다.

7월 22일(금) : 한 원장 덕 세 가족과 함께 '아니바'라는 곳에 가서 하루를 보냈다. 아니바는 지도를 놓고 보면 사할린 남쪽에서 북쪽의 육지쪽으로 깊게 파인 큰 만의 한 가운데 부분이다. 너른 백사장이 좌우로 펼쳐져 있고 정면으로는 바다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해변은 풀밭이어서 젖소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젖소떼들이 풀을 뜯다가 바다에 나가 발을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광경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진풍경임에 틀림없었다. 저녁은 이번 8월에 우리 원 초청으로 서울에서 연수를 받게 될 남영자 선생이 초대를 해 주었다.

어제(7월 21일) 교육을 마치고 사할린 라디오의 김춘자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후 6시 30분쯤 방송되었다. 서정목 부장에게는 알마아타, 타슈켄트와 사할린이 연수생들의 여건에서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묻고 내게는 사할린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여기에 와서 느낀 것 사이에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를 물은 데 대한 대답이 그 내용이었다.

7월 23일(토) : 유즈노사할린스크역에 나가 1박 2일 쓸 승용차를 하나 예약했다. 유즈

노사할린스크에서 북쪽으로 '툴린스크'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좌회전하여 한동안 달리니 우리 동포들이 징용 끌려 와서 죽고, 다치고, 갓은 고생을 하면서 청춘을 바쳤던 '브이코브'가 나타났다. 광부들은 이곳 숙소촌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아침마다 점호를 받고 갠내 운반용 차를 타고 언덕을 몇 개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작업장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밤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 숙소에 돌아와 고향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숙소의 건물들은 다 헐리고 오직 반파된 한 채의 건물만이 당시의 집구조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오후 6시쯤 도착한 곳이 목표 지점인 '토마리'였다. 허남훈 선생과 가족들, 그리고 이곳 한인 동포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토마리는 인구는 8,000명 정도이고 우리 동포는 8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저녁 8시가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들고 약주가 한 순배 돌아가자 징용 1세 할아버지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귀국 문제에 대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 영주 귀국했던 사람이 너무나 변한 고향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 사할린을 찾아와 귀국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 등 다양한 말들이 오갔다. 어쨌든 1세들에게는 2중, 3중의 심적 고통이 주어지고 있나 보다.

7월 24일(일) : 토마리학교를 방문하였다.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한 학교를 다니려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무 교육에 점심도 학교에서 해결된다고 한다. 총학생수 470명에 교사가 4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들 학생 가운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50명 정도라고 한다.

7월 25일(월) : 오후 7시에 제9학교 신숙자 교장 닥의 만찬에 초대 받았는데 김순희, 공노원 선생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신 교장 닥은 편편한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마침 비가 내려서 이국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었다.

7월 26일(화) : 오늘은 사할린에서의 마지막날이다. 오전에는 박물관을 둘러 보았다. 일제 때 지어진 것과 그 후에 지어진 것의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제 때 일본식으로 지어진 박물관을 보기로 하였다. 아이누, 일인, 러시아인,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발자취가 그 곳에 서려 있었다.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박물관을 나왔다. 오후 1시쯤에 멀리 코르사코브에서 한인회 이순복 회장과 김순금 부회장이 우리를 공항까지 태워다 줄 차를 가지고 도착했다. 수십 킬로를 격하여 있는 먼 곳에서 달려 온 것이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다. 한 원장, 이옥자, 이순복, 김순금 선생과 공항을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을 돌봐 준 김순희 선생의 배웅을 받으며 KE 9715 전세기는 오후 6시 30분 사할린 공항을 이륙하였다.

3. 사할린 동포 한국어 교육에 관한 종합 의견

1) 교육 목표

해외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해외 동포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여 살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조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조국의 발전상에 발맞추어 앞으로 잣아질 경제 교류 등의 각종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어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독립국가 연합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어 능력으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독립된 나라의 현지어가 공용어로 등장하자 좌절하게 되고, 또 여기에 귀소 본능이 더해져서 억울하게 강제 이주되었기 때문에 잘 사는 조국으로 귀국시켜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포들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혼란기의 이들에게 불필요한 우월감과 귀국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사할린의 동포 사회는 이와는 다르다. 이곳은 구소련 붕괴 이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우리가 만난 동포들의 대부분이 남과 북을 각각 몇 차례씩 방문한 사람들이어서 북한에는 기대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 동포의 고향이 거의 경상도라는 점에서도 이해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를 잘 할 줄 아는 것이 동포 개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포들, 특히 동포 2세대들이 깨닫고 있다. 또, 대체로 현실에 만족하고 있어 적어도 동포 2, 3세는 모국으로의 귀국에 별 관심이 없다. 다만,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따라서 이들이 바르고 고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2) 현지 동포 사회의 한국어 사용과 교육

사할린주는 전체 면적이 약 7만 평방킬로미터이고(남한은 약 9.5만 평방킬로미터임) 인구는 70만에 못미치는 곳이다. 주정부가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인구가 20만 가량인데 우리 동포가 4만 8천명 정도라고 한다. 대체로 일제 때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강제 징용되어 온 사람들의 2세와 3세로 동포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1세 노인은 극소수가 생존하고 있다. 언어 문제와 관련한 이들 동포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3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시급하다.

동포 사회의 세대차에 따라 언어 구사 능력이 각기 다르다. 1세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안다. 러시아말은 할 줄 모른다고 한다. 러시아말을 아느냐고 물으면 로스케의 말을 왜 하느냐며 심한 혐오감을 나타낸다. 2세는 적어도 1964년까지는 시마다 하나씩 있었던 한국인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곧잘 구사한다. 또 얼마 간의 일본어도 할 줄 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은 동포 2세들이었는데 이들 말은 서울에서 들을 수 있는 경상도 말씨에 러시아식 억양이 가미된 것으로서 의사 소통에는 거의 무리가 없었는데 이는 '관용 표현'의 강에서도 확인되었다. 3세는 대체로 1960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 세대이다. 이들은 러시아어에는 능하나 한국어는 거의 구사하지 못한다. 얼마간의 영어도 할 줄 안다.

지금 사할린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은 2세대인데 이들은 1945년 이전의 일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로 나이가 50세를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50세 미만의 동포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세의 모국어 교육이 급선무인데 이들은 의욕은 있으나 이미 청년기를 지나고 있어 모국어의 습득이 쉬운 것이 아니다.

둘째, 현지 한국어 교육 담당자들에게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다.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사로 있는 동포는 1964년까지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으므로 의사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1964년 이후 한국어의 교육,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정에서도 한국어를 쓸 수가 없어 1989년 한국어 사용과 교육이 부활될 때까지 25년 동안 한국어를 잊고 있었다. 지금의 한국어 교사들은 25년 동안 있어 왔던 한국어의 기억을 되살려 가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1964년까지의 교육 기간 중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1989년 이후 갑자기 교사가 필요하게 되자 한국어를 말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과도기에서 사회적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물가는 한 달에 두 번, 매월 1일과 15일에 각각 한 번씩 오른다. 또, 거의 모든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사들도 4, 5, 6월치 급료를 6월에야 한꺼번에 받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서 능력이 있는 동포 2세 한국어 교사들이 월 850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통역(주로 한·러 무역 관계) 등으로 일하기 위하여 교직을 떠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어느 경우는 하루에 100불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본국에서 도와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셋째, 한국교육원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고 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1학교에 교실 네 칸을 얻어 한 칸은 원장실로 쓰고 나머지 세 칸은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세 칸을 확보한 것은 다행한 일에 속한

다. 교육원장과 박인수 선생, 안드레이 학생 등 세 사람이 각각 한국어 교실을 열고 동포 3세를 대상으로 자기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었다. 한국교육원의 개원이 1993년 12월의 일이었으니 아직은 너무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나 이곳에 파견된 정부의 유일한 공식 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가지는 임무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본국에서 파견되는 한국어 전문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과 현지 교사 중에서 적격한 사람을 가리켜 본국 정부에 교육을 의뢰하는 일 등 아주 중요한 업무가 한국교육원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모국어의 습득이 개개인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으면서도 나이가 이미 청년기를 지나 모국어 학습을 주저하고 있는 3세 모두가 모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국교육원의 몫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교육원에 거는 기대는 크다. 주정부 교육국에서도 국장 이하 부국장, 연수 담당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리라 본다.

3)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현지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지 동포 교사들을 재교육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리 동포, 특히 동포 3세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육원과 주 교육국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현지 동포 교사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전문가의 파견이 필수적이다. 한국교육원에는 한국어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 박인수 선생은 독일어 전공이고 그곳에 유학 중인 안드레이 군은 무역학과 학생이다. 대학 과정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지는 않았더라도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별도의 교육을 통하여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때로는 남북의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다. 1994년도 2학기에 원주 모 국민학교의 송백경 교사가 한국교육원에 파견된다는데 현지 교사이기 때문에 얼마간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수 전문가를 이곳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본다.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가진 국어 전공자를 선발하여 가칭 문화 봉사단 형식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사할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다른 곳, 러시아 이외의 독립국가 연합의 여러 동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들 석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이들 지역에 파견하여 전문 분야에 군복무 기간만큼 봉사하게 하고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면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본다. 복무 기간 동안 그 나라 정부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생계비를 받도록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연구비 명목으로 얼마

간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전문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한국어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본국과 그곳 동포 사회의 유대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해외 동포 한국어 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